과학기술! 우리의 희망입니다.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39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글 | 김 현 _ 기자 hkim@kof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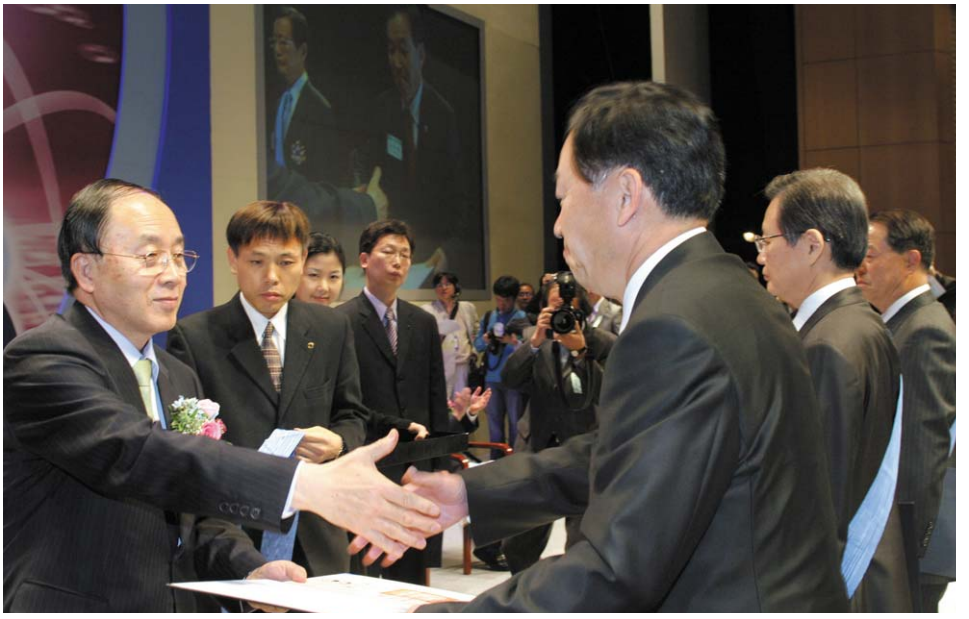
제39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 날 기념식은 김우식 부총리를 비롯해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전상우 특허청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이만기 기상청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 · 차관과,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공주 대한여성과기인 회장, 이혜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1천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김 부총리,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 위한 비전 제시

김우식 부총리는 이 날 치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체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과학기술 세계화와 대중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원천기술의 기반 위에 특성화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국책 연구개발사업을 엄격한 평가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국가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의 우수 과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울트라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고, 대중화를 위해서는 "주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과학문화가 확산되도록 과



김우식 부총리가 시상하고 있다.

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평소 '국가경쟁력은 곧 과학기술 경쟁력이며, 과학기술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취학 전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과학영재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제도를 구비하며, R&D 인력의 재교육도 체계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밖에도 연구 활성화 방안으로 "출연기관별로 특성화된 탑브랜드를 선정 · 개발하고, 전통기술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자 병역특례 지원 방안 마련,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퇴직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추진 등도 약속했다.

또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성장 만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인자이며, 급변하는 세계 환경은 우리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변화와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 다른 20년, 30년 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선진 10위권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복 과총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채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과학기술인 잔치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박나림 아나운서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미력하지만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으며, 기념식장 주변에는 '2006년 화학의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풍성한 유공자 포상으로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이 날 기념식의 메인 행사로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3인과 과학기술진흥유공자 7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 상장과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2006년도 '제 4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황준묵 고등과학원 교수,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김성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인터뷰 기사 참조). 이들 수상자는 기념식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과기

식전행사 모습

기념식장 로비에 설치된 화학의 해 특별전시회

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업적을 소개하고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황준묵 교수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에 이름이 올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도 수상을 기대하지 않아 티셔츠 차림의 사진을 제출했었다"며 "기초 학문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 분야인 수학, 그 가운데도 가장 고전적인 부문의 기하학의 연구 성과를 인정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지난 7년 간 아무런 구속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고등과학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인사로는 처음 이 상을 받은 황창규 사장은 "IT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린 반도체 연구인 모두의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마이크로칩의 용량은 매년 두 배로 늘어난다'는 신메모리 성장론, 이른바 '황의 법칙'으로 일반인에게 더 많이 알려진 황 사장은 "삼성전자가 기가급 반도체 다음으로 테라급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황의 법칙이 IT업계를 35년 간 지배해 온 무어의 법칙을 능가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상금 사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리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을 비롯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용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교수는 "능력에 비해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이제부터는 내가 돌려드릴 것만 생각하며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창의 연구단은 가능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특허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를 산업체로 연결하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산업체)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학문의 교수들이 직접 산업체 연계 고리를 찾아 나서서 국내 BT분야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3년 확대 · 개편한 제도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이나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후보자 추천공모와 발굴위원회의 발굴 과정을 거쳐 선정한 총 32명을 후보자를 토대로 1단계와 2단계 종합심사를 거쳐 이학, 공학, 의 · 약학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다.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2006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 · 포장 및 표창은 과학기술훈장 29명, 과학기술포장 8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4명 등이 수여했다(명단 참조).

과학기술훈장의 최고 등급인 창조장 수장자에는 조의환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최진호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3명이 선정됐다. ST

2006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조의환(趙義煥 · 70)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최진호(崔珍鎬 · 58)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기협(金起協 · 60)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최인훈(崔仁勳 · 64) 고려대학교 교수

윤여순(尹汝舜 · 58) 골든콘넥터산업(주) 대표이사

염영일(廉英一 · 64)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리형(李利衡 · 65)한양대학교 부총장

김태유(金泰由 · 55) 서울대학교 교수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정호균(鄭昊均 · 56) 삼성SDI 연구소장

이서구(李瑞九 · 63)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정명희(鄭明姬 · 53)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문길주(文吉周 · 5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장

이병택(李秉澤 · 49) 전남대학교 교수

고)이기석(李紀奭 · 82) 전)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장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김 구(金 坵 · 60) 서울대학교 교수

이조원(李兆遠 · 55) (재)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장

이후상(李厚祥 · 62) 한국기계연구원 석좌연구원

박영필(朴寧弼 · 58) 연세대학교 교수

김대황(金大璜 · 61)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백경희(白敬喜 · 50) 고려대학교 교수

심윤상(沈潤相 · 62) 원자력의학원 / 이비인후과 과장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김명수(金明壽 ·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춘식(姜春植 · 50) ㈜금강오토텍 대표이사

이정구(李正九 · 65) 단국대학교 교수

김휘중(金輝中 · 61) 한국타이어 사장

정헌생(鄭憲生 · 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욱환(李旭桓 · 5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실장

이상엽(李相燁 · 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단장

김두환(金斗煥 · 63) 한국안전기술컨설팅 연구원장

과학기술포장

장순남(張淳男 · 53)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고영희(高永熹 · 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하달규(河達逵 · 55) ㈜하이텍홀딩스 대표이사

박태주(朴泰朱 · 56) 부산대학교 교수

윤영광(尹永光 · 51) 한국과학문화재단 실장

임상훈(林常薰 · 52) 대전시 과학동호회 연합회장

박찬중(朴贊仲 · 43) (주)코디에스 대표이사

고) 이학범(李學範 · 42) 전) 과학기술부 과장

대통령표창

신중훈(愼重勳 · 38)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박영득(朴永得 · 51) 한국천문연구원 부장

이봉주(李奉柱 · 45) 핵융합연구센터 팀장

강도현(姜道鉉 · 48) 한국전기연구원 단장

정정오(鄭頂五 · 45) LG전자㈜ 책임연구원

변광유(卞光柳 · 47) ㈜하이닉스반도체 수석연구원

백병육(白秉六 · 55) 서우전기(주) 대표이사

양수석(梁秀錫 · 4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룹장

유원희(兪元熙 ·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KurtErnst Geckeler(58)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경수(金炅秀 · 42) ㈜카이로제닉스 대표이사

심상준(沈相俊 · 40)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김태룡(金泰龍 · 54) 한국전력공사 수석연구원

한도희(韓道熙 · 50)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장

안선희(安仙喜 · 48) ㈜대호에코텍 대표이사

김인수(金仁洙 · 57) 전북대학교 교수

조순로(趙順魯 · 46) 한국과학재단 부장

이인덕(李仁德 · 60) 충남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서정주(徐廷珠 · 4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팀장

조병기(趙炳起 · 45)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경태(金璟泰 · 45)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문재(趙文載 · 4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동선(林東先 · 4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고재수(高在洙 · 46) ㈜에이텍 부설연구소 소장

권태근(權泰根 · 55) ㈜프로랭스 대표이사

김길중(金吉中 · 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

김성근(金聲謹 · 45) 현대자동차 수석연구원

이연희(李姸姬 · 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승수(林勝洙 · 58) ㈜티에스 대표이사

장병희(張炳熹 · 4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룹장

박태정(朴泰正 · 39) 두산중공업㈜ 과장

신태영(愼泰榮 · 49) 기아자동차㈜ 수석연구원

강건용(姜建用 · 46) 한국기계연구원 센터장

장태선(張泰善 · 45)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윤봉요(尹琫堯 · 37)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원

마상준(馬相準 · 4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양규복(楊奎福 · 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장

한승호(韓承鎬 · 53) ㈜한설그린 대표이사

반재병(潘在棅 · 60) 한국기계연구원 실장

오세홍(吳世弘 ·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팀장

김종수(金鍾秀 · 46) 서강대학교 교수

문혜선(文惠鮮 · 3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팀장